

##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 1. 기본정보

이름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18.01.14.~2018.02.04

###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스카이 트레인과 버스로 쉽게 학교에 등하교 할 수 있었다. 학교 내부의 시설과 청결 또한 매우 좋았다.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 많았고 점심때는 카페테리아의 자리가 많이 없을 정도로 학생들이 붐볐다. 학교 내의 학생들의 복지가 상당히 좋았다.
수업	수업의 난이도는 너무 낮았으며 낯선 이와 대화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캐나다 문화와 한국 문화의 차이점, 간단한 토론 등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모든 수업은 다 영어로 진행되었다. 오전에는 수업을 했고 오후에도 대부분 수업을 했지만 주의 2번 정도 박물관, 아쿠아리움 등으로 견학을 갔다. 같이 간 순천향대 15명의 학우들과 한 반에서 수업을 진행하였다. 날마다 과제가 있었지만 하루 10분 정도만 투자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수업 중 대부분 조끼리 토의하는 시간이 많았고 조를 이루어 하나의 주제를 정해 발표를 하는 시간이 많았다. 수업의 난이도가 낮은 것이 원인 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업은 굉장히 지루했고 강사 또한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았다.
Activity	컬링, 밴쿠버 박물관, 아쿠아리움, 그랜빌 아일랜드, 스노우슈잉이 오후 액티비티로 진행되었다. 따로 준비해야 할 것과 추가비용은 없었지만 스노우슈잉 때에는 눈이 많고 춥기 때문에 두꺼운 옷과 털모자, 장갑, 목도리, 젖지 않는 외투와 신발이 필요하다.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3주 내내 비가 왔고 해가 뜬 날은 3~4일밖에 되지 않았다. 평균 온도가 4도에서 6도이지만 비가 매일 오기 때문에 쌀쌀하고 추웠다. 바람도 많이 불어서 우산을 써도 신발과 바지는 대부분 계속 젖었다.
안전	치안은 생각보다 좋았고 다운타운과 개스타운, 스카이 트레인 역에 홈리스들이 많지만 무시하고 지나치면 별 문제 없다. 겨울이어서 해가 6시만 되면 지기 때문에 많이 깜깜해서 저녁에 바깥을 다니기에는 살짝 무서웠다.
숙소	학교기숙사( ) 홈스테이( o ) 외부 숙소( ) 기타( ) 개인 방과 개인 화장실을 따로 사용했고 집에 난방이 되지 않아 다소 추웠다. 홈스테이 가정마다 집에서의 규칙이 다르지만 샤워시간이 10분으로 정해져 있는 것, 방에 없을 때 불을 끄는 것 등 쉽게 지킬 수 있는 규칙들이었다.
식사	학교식당( ) 홈스테이( o ) 외부식당( o ) 기타( ) 홈스테이에서는 아침에는 대부분 빵과 씨리얼, 점심에는 샌드위치나 전 날 저녁에 먹고 남은 음식을 먹었고 저녁에는 밥과 야채, 고기를 주로 먹었다. 한식당에서 한식을 사먹기도 했고 유명하다는 음식점에서 저녁을 사먹기도 했다.
교통	스카이 트레인으로 홈스테이와 학교까지 왕복 80분 정도 통학했다. 스카이 트레인과 버스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zone끼리 교통비의 차이가 있으니 잘 숙지하는 편이 좋다.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eTA, 여행자보험	1,412,0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유심	63,900원	출국 전 구입
개인 경비	650,000원	식비, 쇼핑 비용 등
합계	2,125,900원	

## 5. 출국 전 준비사항

겨울 밴쿠버는 비가 매일 오니 우산은 꼭 필요하고 젖지 않는 신발이 있으면 좋다. 날씨도 그리 따뜻한 편이 아니며 홈스테이 집이 추운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모를 비상약을 챙겨가는 것이 좋다. 홈스테이 가족들과 만나기 전에 간단한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포켓와이파이 보다는 유심을 미리 구입해서 가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 Tip문화와 Tax가 따로 있으니 미리 숙지하고 가는 것이 좋다. 한인 마트가 있지만 가격이 한국의 두 배이기 때문에 컵라면은 3~4개 정도 미리 준비해가는 것이 낫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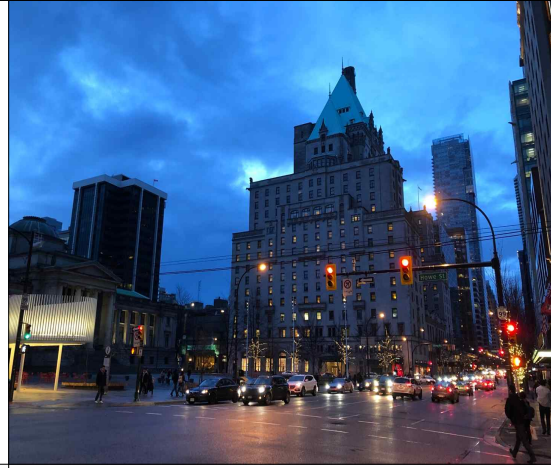
## 6. 본인 소감 및 평가

영어 말하기의 실력을 눈에 띄게 향상시키기에는 3주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다고 생각한다. 또한 수업은 영어 실력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3주 동안 캐나다의 문화를 경험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캐나다는 한국과는 다르게 문화가 많이 개방되어있고 다양한 인종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를 경험해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홈스테이 가족들도 친절하고 잘 챙겨주셔서 홈스테이의 경험도 재미있었고 좋았다. 영어 실력 향상에는 다소 아쉬운 점이 많지만 새로운 문화를 경험해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만족한다. 또한 단기어학연수를 통해 교환학생에 지원하겠다는 막연한 목표를 뚜렷이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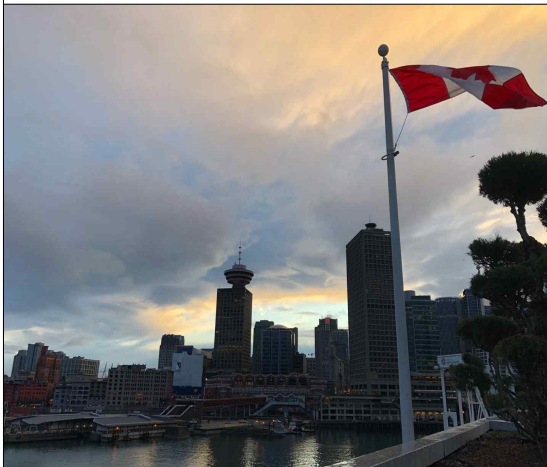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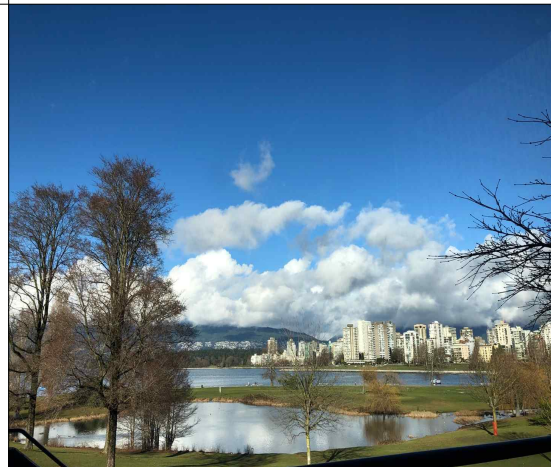
개스클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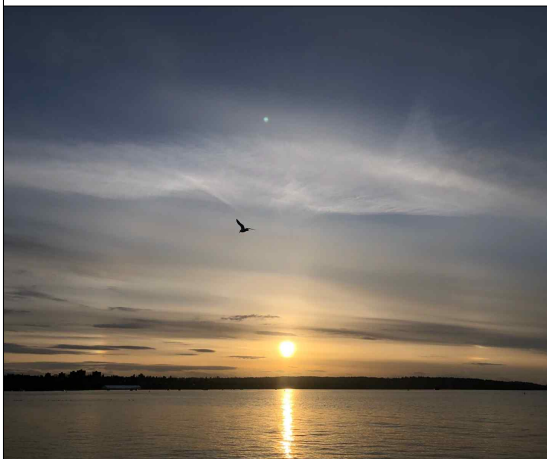
다운타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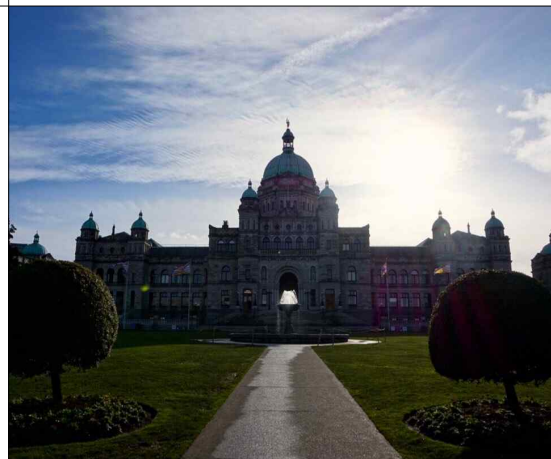
캐나다 플레이스



캐칠라노



잉글리시 베이



빅토리아